

タイトル	日本 法隆寺 日本書紀
著者	川端，俊一郎
引用	北海学園大学学園論集，122：1-21
発行日	2004-12-25

日本 제일의 法隆寺를 기록하지 않은 日本書紀

가와바타 준이치로(川端俊一郎)

민 병훈(閔 丙勳) 譯*

1. 隋書에서 도용한 유라쿠(雄略)천황의 유언

日本書紀의 허실

日本書紀를 통해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중의 하나가 中國 隋書로부터의 도용이다. 특히 유라쿠(雄略)天皇의 유조(遺詔)는 隋나라 高祖의 遺詔에서 3 백 여字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中國皇帝의 遺言을 日本天皇의 遺言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파악된다. 그러나 무슨 연유로 이러한 일이 행해졌는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았다.

日本書紀에는 이밖에도 경악할 만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中國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梁書 등에서도 부분부분 문장과 구절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倭人傳이나 倭國傳의 기록에 관해서도 日本書紀의 編者들은 이미 주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日本書紀는 그러한 기록을 무시하고 있으며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漢書에 보이는 武帝로부터의 金印에 대한 史實과, 三國志의 卑彌呼(卑彌呼)의 金印에 대한 史實, 梁書에 등장하는 倭의 五王에 대한 기술, 大將軍이 되어 都督府(都督府)를 연 倭王 武에 대한 史實, 나아가서 隋書에 등장하는 히이즈루토코로(日出處)의 天子에 대한 내용 등, 다시 말해서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대의 重大事가 日本書紀에는 어느 것 하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중대사가 日本書紀에 어떤 이유로 기록되지 않았는가하는 점 또한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았다.

日本書紀의 기반이 된 사료에 관해서는, 古事記의 序文에서 보는 것처럼 제기(帝紀)와 구사(舊辭)가「主된 史料」였다고 하는 해설이 일반적이다(岩波古典文學大系、坂本太郎). 그러나 거기에는 예로부터 있어왔던 中國과의 國交에 대한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三國 중 일본과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백제에 百濟記, 百濟新撰, 百濟本記 三書가 있었던 사실은 日本書紀의 할주(割註)를 통해 알 수 있다. 隋書와 마찬가지로 이 三書에서도 아무런 양해 없이 本文에 大量으로 차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高麗時代に 편찬된 三國史記(1145년)에 중국과의 교류기사가 풍부한 것으로 미루어 이 三書에도 그와 같은 記事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日本書紀에는 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日本一の法隆寺を記さない日本書紀」と題したこの論文は、2004年7月2日に韓国の大田大学校で法隆寺について講演したおりに、日語日文学科の閔丙勳先生に翻訳の労をとっていただいたもので、拙著『法隆寺のものさし—隠された王朝交替の謎』(ミネルヴァ書房、2004年2月刊)の第4章が基になっている。もちろん拙論は閔先生と見解を一にするものではないであろうが、その労には感謝に堪えないものがある。

日本書紀에「日本舊記云...」이라고 하는 할주(割註)가 한 곳 발견되는데, 高句麗에 패한 百濟의 救興에 관련한 記事를 게재하고 있다(雄略天皇 21年).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 日本舊記는「主要한 史料」안에 포함되는 일이 없다. 그 書名으로 보아 제기(帝紀)나 구사(舊辭)보다 본격적인 史書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百濟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 상황도 기록되어있지 않았을까. 일본 측에 日中國交에 관한 重要記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日本書紀는 새로운 도읍지 奈良의 政權이 국내외의 史料를 取舍選擇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정권에 있어서 편리한 것은 취하고 불합리한 사실은 버린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日本書紀에 없는 法隆寺의 創建

日本書紀는 法隆寺의 燒失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創建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日本의 學校教育에서 法隆寺는 쇼토쿠(聖德)太子가 건립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 法隆寺가 670年 4月 30日에 全燒한 사실에 대해 日本書紀가「夜半之後、災法隆寺。一屋無余。大雨雷震」이라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목전에 法隆寺가 세워져 있어 燒失되었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聖德太子는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우마야도(厩戸)皇子가 이후에 신앙을 결집하여 숭앙받던 인물이므로, 사람들은 더더욱 燒失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燒失에 관한 記錄은 있어도 再建에 관한 記錄이 없기 때문에 燒失만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9년 그 소실되었던 자취가 발굴되자 燒失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원래의 法隆寺의 소실흔적은 정지(整地)되었고, 그 위 서쪽 근방에 현재의 法隆寺는 세워져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法隆寺는 厩戸皇子가 건립한 사찰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소실된 곳에서 발견된 절이 지금의 法隆寺와는 전혀 다른 伽藍配置이었다는 점이다. 즉 지금의 法隆寺는 소실된 法隆寺를 再建한 건물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001년 五重塔 中心柱의 伐採年이 594년이라는 사실이 기둥의 年輪을 통해 판명되었다(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光谷拓美). 그리고 그에 준하여 계산한 결과 놀랍게도 그 伐採는 원法隆寺가 燒失된 670년보다 훨씬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원法隆寺는 원法隆寺가 燒失되고나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 아닌 것이다. 원法隆寺가 燒失되기 전 어딘가 다른 장소에 세워져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일본 제일의 寺院을 燒失된 法隆寺의 자리에 移築한 것이 된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法隆寺의 伽藍配置가 燒失된 건물과 상이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法隆寺非再建說의 根據가 되어온 오래된 建築樣式도 納得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분명 燒失되었을 法隆寺의 佛像이 모두 상처 없이 지금의 法隆寺에 現存한다고 하는 의문도 解消되는 것이다.

中心柱의 伐採年을 確定한 自然科學的인 年輪年代測定法에는 多少의 說明이 필요하다. 회(檜)나무의 年輪幅의 變化패턴은 여러 遺跡 등에서 발굴된 것과 관련지어, 이미 2900년 전까지의 연도가 판명되었다. 그것과 法隆寺中心柱의 年輪을 겹쳐보면, 마치 계산대의 바코드에서 商品의 價格을

알 수 있듯이 年輪의 연도를 알 수 있다. 물론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年輪年代學이라고 하는 이 自然科學的인 方法은 20世紀 初 미국의 A.E.Douglass가 확립시킨 것으로, 애리조나대학에 年輪研究所가 設立되었다.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에서도 20년 정도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年輪年代測定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성과가 공표되었다. 五重塔中心柱의 一角에는 다행히도 樹皮가 붙은 年輪이 있었기 때문에 伐採年을 測定할 수 있었던 것이다.

X寺를 移築하여 法隆寺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쟁점화 되는 것은, 이 일본제일의 寺院 創建에 관하여 日本書紀가 무엇하나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續日本紀도 그 移築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日本政府의 歷史書가 日本제일의 古代建築의 創建과 移築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지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法隆寺에는 緣起와 資財帳이 있다. 당연히 이것은 소실된 法隆寺의 것이 아니라 현法隆寺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實은 그 緣起와 資財帳이 모두 紛失되었었다.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保安二年(1121年)寺僧인 源朝가 시골민가의 雜反古中에 산재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서적이 『佛教并資財條』이며 현존하는 것은 元文元年(1736年)의 書寫이다. 江戸時代인 寬政年間이 되어 발견된 것은 『法隆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牒』의 古寫本으로, 觀心寺蓮藏院에 所藏되어 있던 것을 上田秋成 등이 寬政七年(1795年)書寫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 현존하는 緣起와 資財帳은 모두 法隆寺가 언제 건립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인지 또한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았다. 개찬(改竄)되어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法隆寺의 建立에 관해서는 불과 七大寺年表나 東寺王代記가「어떤 기록에서 말하기를(或記言)」등으로, 지금의 法隆寺가 和銅初期의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한마디 누설하고 있을 뿐이다. 단 그 建立年度에는 三年의 격차가 있어 年表에서는 和銅元年에「作法隆寺」, 王代記에서는 和銅3年 奈良遷都의 해(710年)에「法隆寺建立」이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移築의 期間일 것으로 추측된다.

도읍 奈良로 移築된 寺院에는 元興寺나 藥師寺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法隆寺는 燒失된 法隆寺 자리에 별개의 절을 移築하여 그것을 또한 法隆寺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별개의 절에는 본래의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우선 그것을「X寺」라고 해 두겠다. 그 일본제일의 X寺는 우마야도(厩戸)皇子(聖德太子)가 세운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日本書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X寺 본래의 이름을 推測해 볼 수는 있다. 法隆寺의 金堂에 있는 釋迦三尊像의 光背에는 法興寺이라고 하는, 日本書紀에는 없는 年號가 새겨져 있다. 사실 그 연호에 유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法興寺에 관한 斷片的인 記事가 日本書紀의 여러 곳에 散在해있다. 따라서 그 法興寺의 用材를 伐採

한 해를 五重塔中心柱의 伐採年인 594年에 맞춰보면 建立을 起願했던 해가 法興元年(591年)이 되고, 完成된 해가 最初の 遣隋使를 보낸 해(600年)가 된다.

日本書紀는 새로운 수도 奈良에서 編修되어 養老4年(720년)에 완성되었다. X寺(法興寺)가 移築된 이카루가(斑鳩)는 수도의 서쪽에 인접해있다. 바로 移築된 X寺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日本書紀는 편찬되었다. 그러나 그 일본제일의 古代建築에 대해서 日本書紀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日本書紀는 여러 가지 重大한 사건을 은폐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역사에서 지워진 견수사(遣隋使)

일본 제일의 X寺 창건에 관하여 일본서기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즉 X寺 창건은 버려진 기록인 것이다. X寺의 용재(用材)가 594년에 벌채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은 견수사(遣隋使: 600년)가 처음으로 파견된 무렵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견수사도 일본서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견수사의 존재는 중국의 수서(隋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견수사야말로 기록되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본서기에는 없다. 이것 역시 버려진 기록인 것이다.

왜국(倭國)최초의 견수사는 수나라 고조(高祖)문제(文帝)에게로 보내어졌다. 그 고조의 유조(遺詔)를 일본서기는 도용하고 있다. 일본서기에는 수나라 고조(高祖)도 그리고 수제국(隋帝國)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게 작의(作意)한 이상 일본서기의 편자에게 있어서 견수사를 보낼 계획도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일본서기에는 제 1차 견수사뿐만 아니라 견수사에 관한 사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버려진 기록, 즉 X寺건축과 견수사를 연관지어볼 수 있다. 일본 제 1의 X寺를 창건한 왜왕(倭王)이 수나라에 사절을 파견했다. 이 고대사의 정점이 될 만한 내용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본서기는 기록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풀기위한 열쇠는 문장의 주어에 있다. X寺와 견수사가 버려진 것은 이와 관련된 왜왕(倭王)이 버려진 쪽의 기록에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서기에서는, 스이코(推古)천황 15년 야마토의 실력자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의 시대였는데, 섭정(攝政)이 우마야도(厩戸)황자로, 오노노이모코(小野妹子)를「大唐」으로 파견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스이코(推古) 15년인 정묘년(丁卯年)을 서력으로 환산하면 607년이 되므로 隋나라 양제(煬帝)의 대업(大業) 3년에 해당한다. 수서(隋書)도 그해에 2번째로 맞은 왜국(倭國)사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는 수나라가 아니라「大唐」으로 보내진 사절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에 있어서 이 사절이 당제(唐帝)에게로 보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제(隋帝)에로의 사절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오노노이모코(小野妹子)는 견수사가 아니라 견당사이다. 이것을「사실은 수나라」(岩波注, 아오키(青木))라고 해설하고 끝내버릴 수는 없다. 일본서기의 편자들은, 사실이 수나라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당나라라고 적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적절한 설명도 없이 진실은 수(隋)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오노노이모코(小野妹子)일행의 大唐으로의 사절이 수나라

대업(大業) 3년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것이 전부 일본서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수나라로의 사절은 버려진 기록인 것이다. 문제는 왜 견수사는 버려진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것을 푸는 열쇠는 역시 누가 견수사를 파견했는가에 있다.

수서(隋書)에 따르면 2 회제의 견수사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왜왕(倭王)으로부터의 것이었으며 스이코(推古)여제로부터의 것이 아니었다. 고조(高祖)를 계승한 양제(煬帝)를 해떨어지는 곳(日沒處)의 천자(天子)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해뜨는 곳의 천자라고 칭한 왜왕의 성은 阿每, 이름은 多利思北孤라고 수서(隋書)는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왜왕은 일본서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일본서기가 버린 왜왕인 것이다. X寺와 견수사 뿐 아니라 그 주역인 히이즈루토코로(日出處)의 천자를 포함해서 3 者が 세트가 되어 버려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서기가 기록하는 것을 꺼린 사실이다. 즉 견수사를 보낸 왜왕은 일본서기의 왕이 아니다. 왕이 다르기 때문에 3 점을 일괄하여 소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스이코(推古)천황은 견수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이 결론은 견수사시대에는 일본서기의 천황이 왜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寺나 견수사가 스이코(推古)천황과는 다른 왜왕의 사적(事績)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唐)은 있지만 수(隋)는 없는 日本書紀

일본서기는 수나라 고조(高祖)의 유조(遺詔)를 도용하여 고조(高祖)를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하고, 견수사도 소거하여 수제국(隋帝國)마저도 없던 나라로 만들었다. 그런데 수나라와 양제(煬帝)의 이름이 일본서기에 단 한 번 등장한다. 그것은 스이코(推古) 26년에 고구려에서 온 사신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된다. 「수(隋)의 양제(煬帝)가 30 만의 군세로 우리를 공격해 왔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패했다」라는 소식이다. 이 사건이 고구려사에 있어서 저 유명한「살수대첩(薩水大捷)」이다. 30 만이라는 숫자가 수서(隋書)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사절의 말을 기록한 사료(史料)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 큰 승리는 대업(大業) 8년(612)의 일이었다. 스이코(推古) 26년은 그 후 6년이나 지난 시기이다. 일본서기의 편자가 일부러 사실을 늦춰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상 이 해는 양제(煬帝)가 살해된 해였다. 3년 연속 고구려친정(親征)에 실패한 후 각지의 반란에 당면한 양제(煬帝)는, 스스로 개착(開鑿)한 대운하를 남하하여 양자강(揚子江)변의 강도양주(江都揚州)로 도주한다. 그리고 거기서 친위대에게 살해된다. 그 해에 맞춰 일본서기는 양제(煬帝)의 대패를 기록하고 수나라의 멸망을 시사한 것으로 추찰된다. 이렇게 하여 수나라는 현실에서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나라의 이연(李淵)은 이미 1년 전에 군사를 일으켜 수나라의 도읍인 장안(長安)에 진군하여, 도주한 양제(煬帝)를 태상황(太上皇)으로 하고 원덕(元德)태자의 13세 아들을 황제로 옹립했다. 공제(恭帝)이다. 물론 선양(禪讓)을 피하기 위한 일이다. 양제(煬帝)의 모친은 이연(李淵)의 종모(從母)였다. 북주(北周)의 천화(天和)원년(566)에 장안에서 태어난 이연은 7세 때 당국공(唐國公)이 되고 군사를 일으킨 것은 50세를 넘은 때였다.

양제가 살해되자 이연은 공제(恭帝)를 선양시켜 제위에 오르고 연호를 무덕(武德)이라 하여 당 왕조를 열었다. 한편 동도(東都)인 낙양(洛陽)에서도 정(鄭)의 왕세충(王世充)이 새로운 수제(隋帝)를 세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양(禪讓)을 받아 즉위하여 연호를 개명(開明)이라 칭한다. 당나라 군대가 낙양(洛陽)에 들어와 정국(鄭國)을 멸망시킨 것은 무덕(武德) 4년의 일이다.

나라가 혼란해지면 여러 개의 중국이 발생한다¹⁾.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의 성립을 알지 못한 채, 처음부터 당나라에 사절을 파견한 것으로 모의하여 일본서기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에도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야마토가 중심이었던 것처럼 일본서기는 기록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야마토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수나라 고조(高祖)유조(遺詔)의 유라쿠(雄略)천황유조(遺詔)로의 전환

일본서기의 편자는 북조의 수나라에 의한 남조정복, 그리고 수에서 당으로의 왕조교체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100년 정도 이전의 일이었지만 당나라 제국이 편수한 수서(隋書)를 상세히 읽고 있었다. 그것을 전제로 마치 수제국(隋帝國)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하여 고조(高祖)의 유조(遺詔)를 유라쿠(雄略)천황의 유조(遺詔)로 차용했다.

천황의 유언에 중국황제의 것을 도용한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사실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서기(書紀)가 한적(漢籍)을 당당하게 활용한 것은 결코 현대풍의 도작(盜作)이나 표절풍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되고 있다. 놀라운 일은 이것을「비난」하는 것은「모토오리노리나가(本居宣長)등의 국학자 들」이라고 단정하고 있다(이와나미(岩波)解説, 코지마노리유키(小島憲之)).

그러나 유라쿠(雄略)유조(遺詔)의 경우 한적(漢籍)의 가구(佳句)를 차용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고조(高祖)의 유조(遺詔)에서는 처음의 130자와 마지막 100자 정도를 제외하면 중간의 300자 정도가 있는 그대로 차용되고 있다. 일본서기도 중국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일자일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소 길어지지만 일본서기의 조작상황을 전제로 할 때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언급하고자한다²⁾.

유라쿠(雄略)유조(遺詔)의 모두(冒頭)는「방금구우일가(方今區宇一家), 연화만리(煙火萬里), 백성안(百姓安), 사이빈복(四夷賓服), 차우천의(此又天意), 욕녕구하(欲寧區夏). 시이소심려기(是以小心勵己), 일신일일(日愼一日), 개위백성고야(蓋爲百姓故也)」이다. 이것과 같은 문장이 고조기(高祖紀)의 인수(仁壽) 3년 7월에「방금구우일가(方今區宇一家), 연화만리(煙火萬里), 백성예안(百姓乂安), 사이빈복(四夷賓服), 개시인공(豈是人功), 실내천의(實乃天意), ……시이소심려기(是以小心勵己), 일신일일(日愼一日)」, 그리고 이듬해 7월에「차우시천의(此又是天意), 욕녕구하(欲寧區夏). ……개위백성고야(蓋爲百姓故也)」라는 기록으로 확인된다. 이 두 문장을 조합하여 유라쿠(雄略)천황의 유조(遺詔)가 시작되는 것이다.

「백성을 위하여 항상 근신하고 자신을 격려하여 마음을 다듬어 왔으므로 하늘의 뜻에 부합하여, 백성은 안정되고 넷 오랑캐는 순종하고 굴뚝연기는 만리에 이르러 천하는 한집과 같다. 이 문장이

후의 유라쿠(雄略)유조(遺詔)는 점철(點綴)되어있다기보다 고조(高祖)의 유조(遺詔)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조(高祖)의 유조(遺詔)에서는「왕공경사(王公卿士), 매일궐정(每日闕庭), 자사이하(刺史以下), 삼시조집(三時朝集), 하상불경갈심부(何嘗不罄竭心府), 계칙은근(誠勅慇懃)」이라고 한 것을 유라쿠(雄略)유조(遺詔)에서는 관직명을 일본의 것으로 바꾸어「신연반조(臣連伴造), 매일조참(每日朝參), 국사군사(國司郡司), 수시조집(隨時朝集), 하불경갈심부(何不罄竭心府), 계칙은근(誠勅慇懃)」으로, 신하된 자들이 일참(日參)하여 심부(心府)를 다하고 계칙(誠勅)에 마음을 쓰라는 내용이 기술되어있다.

다음으로 고조(高祖)유조(遺詔)는「의내군신(義乃君臣), 정겸부자(情兼父子), 서자백료지력(庶藉百僚智力), 만국환심(萬國歡心), 욕령술사지인(欲令率士之人), 영득안락(永得安樂)」이라 쓰고 있지만, 그 백료를 신연(臣連), 만국을 내외(內外), 술사(率士)를 천하(天下)등으로 바꾸어 유라쿠(雄略)천황유조(遺詔)는「의내군신(義乃君臣), 정겸부자(情兼父子), 서자신연지력(庶藉臣連智力), 내외환심(內外歡心), 욕령보천하지하(欲令普天下之下), 영보안락(永保安樂)」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義에서는 君과 臣이지만, 情에서는 父와 子를 겸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력을 합하여 이 천하를 오래도록 안락하게 보전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고조(高祖)는「불위(不謂), 구질미류(遘疾彌留), 지어대점(至於大漸), 차내인생상분(此乃人生常分), 하족언급(何足言及), 단사해백성(但四海百姓), 의식불풍(衣食不豐), 교화정형(教化政刑), 유미진선(猶未盡善), 흥언염차(興言念此), 유이류한(唯以留恨)」이라고 말하는데, 그「단사해백성(但四海百姓), 의식불풍(衣食不豐)」이라고 쓴 곳을「단조야의관(但朝野衣冠), 미득선려(未得鮮麗)」라고 고쳐 쓰고 있다. 유라쿠(雄略)천황이「예상치도 않게 병이 깊어졌지만 이것도 인생의 일부로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다만 조야의 의관이 아직 확실치 않고 교화정형(教化政刑)도 좋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차용은 계속되고 있다.

이하의 원문은「짐금연유육십(朕今年踰六十)」이다. 이것을 유라쿠기(雄略紀)에서는「금년유약간(今年踰若干)」으로 바꾸었다. 연령인「육십(六十)」이「약간(若干)」이 되어있다. 고조기(高祖紀)에는「붕어대보전(崩於大寶殿) ……시년육십사(時年六十四)」이라고 써어있으나 유라쿠기(雄略紀)에는「붕우대전(崩于大殿)이라고만 되어있고 연도가 기재되어있지 않다. 그 전대인 인교(允恭)천황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유라쿠(雄略)천황은 62 세가 된다. 그런데 고사기에서는 124 세이다. 일본서기의 성립까지인 8년 동안 유라쿠(雄略)천황의 연령이 반감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차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망한 연대도 10년의 차가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천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상당히 자유로운 편수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가 완성되자 고사기는 버려졌다. 일본서기와는 전혀 다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고사기가 널리 유포되어서는 곤란했던 것이다. 고사기는 중세가 되어서야 나고야(名古屋)의 眞福寺에서 말하자면 기적적으로「발견」되었다. 그것을「재발견」한 인물이 모토오리노리나가(本居宣長)이다.

유조(遺詔)는 그 다음도 원문 그대로「불복칭요(不復稱夭), 단근력정신(但筋力精神), 일시로갈

(一時勞竭). 여차지사(如此之事), 본비위신(本非爲身), 지욕안양백성(止欲安養百姓), 소이치차(所以致此)가 이어진다. 요절(夭折)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근력도 정신도 한 순간에 다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백성의 안양(安養)을 위한 것인데, 라는 전제이다. 이어서 고조(高祖)는「인생자손(人生子孫), 수불애념(誰不愛念)」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유라쿠(雄略)도「인생자손(人生子孫), 수불속념(誰不屬念)」이라고 쓰고 있다. 자손에 대하여 누가 애정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제까지는 천하만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온 것이다. 양자는 똑같이「기위천하사수할정(既爲天下事須割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제인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간다. 고조(高祖)가「용급수등(勇及秀等), 병희패악(竝懷悖惡), 기지무신자지심(既知無臣子之心), 소이패출(所以廢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유라쿠(雄略)는「용급수(勇及秀)를「성천왕(星川王)」으로 바꾸고「심희패악(心懷悖惡)」하고「행궐우우(行闕友于)」한 인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우우(友于)라는 것은 공자가 논어에 인용한 상서(尙書)의 말「우우형제(友于兄弟)」에서 온 것으로, 우애 있는 형제를 말한다. 황위계승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형제가 다투는 경우가 많다. 이 좋지 않게 여겨졌던 싸움에서 패한 성천왕(星川王)이라는 인물은 유라쿠(雄略)천황과 키비(吉備)의 稚媛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아들로, 다음 천황인 세이네이(清寧)천황과 황위를 다투다가 살해된 황자이다.

이어서 원문의「고인유언(古人有言), 지신막약어군(知臣莫若於君), 지자막약어부(知子莫若於父)」는「어(於)」만을 누락시키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자식을 황태자로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자가 나라를 통치하여 신하에게 욕욕(辱戮)이 미치고 서민에게도 해독(害毒)이 흘러들어간다고 설득하며, 「약령용수득지(若令勇秀得志), 공치가국(共治家國), 필당욕욕편어공경(必當戮辱徧於公卿), 흑독류어인서(酷毒流於人庶)」라고 고조(高祖)는 말한다. 유라쿠(雄略)는 용(勇)과 수(秀)를 星川으로 바꾸어「종사성천득지(縱使星川得志)」라고 하고, 공경(公卿)을 신연(臣連), 인서(人庶)를 민서(民庶)라고 고쳤다.

계속되는 원문의「금악자손이위백성출병(今惡子孫已爲百姓黜屏)」에서는 금(今)을 부(夫)로 하고, 출병(黜屏)을 소탄(所憚)으로 바꾸었다. 악한 자식은 이미 백성에게 미움을 받지만 좋은 자식은 대업을 맡기기에 충분하다. 「호자손족감부하대업(好子孫足堪負荷大業). 차수짐가사(此雖朕家事), 리불용은(理不容隱). 내 집안일이라고는 하나 리(理)는 숨길 방법이 없다. 이어서 고조(高祖)는「전대문무시위(前對文武侍衛), 구이론술(具已論述)」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바꾸어 유라쿠(雄略)는「대연등(大連等), 민부광대(民部廣大), 충영어국(充盈於國)」이라 말하며 모두를 의지하고 있다.

계속해서 고조(高祖)는 좋은 자식을 칭찬하고「황태자광(皇太子廣), 지거상사(地居上嗣), 인효저문(仁孝著聞), 이기행업(以其行業), 감성짐지(堪成朕志)」라고 말한다. 휘(諱)인 광(廣)자는 삭제하고 후계자를 의미하는 저군(儲君)자를 가미하여 유라쿠(雄略)는「황태자(皇太子), 지거저군상사(地居儲君上嗣)」라고 말한다. 인(仁)과 효(孝)에 대해서도 칭송과 행함은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칭찬한 것이다. 유라쿠(雄略)천황의 황태자는 세 번째 아들로 카츠라기(葛城)의 카라히메(韓媛)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이어서 고조(高祖)는 모두에게 협력을 부탁하며「단령내외군관(但令内外群官), 동심육력(同心戮力)」을 벗고 함께 천하를 다스려 준다면 명목(瞑目)으로도 원망을 살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할주(割註)에서, 한 전본(傳本)이 말하기를 星川王이 황태자를 해할지도 모르니「여등민부심다(汝等民部甚多), 노력상조(努力相助)」라고 말한 것을 보완하여 유랴쿠(雄略)천황의 유조(遺詔)는 끝나고 있다.

유조(遺詔)의 본문뿐 아니라 그 앞의 상황묘사까지도 수서(隋書)로부터 차용되어 있다. 유랴쿠(雄略) 23년 7월「천황침질불예(天皇寢疾不預)」다음의「조상벌지도(詔賞罰支度), 사무거세(事無巨細), 병부황태자(竝付皇太子)」라는 동일 문장이 仁壽 4년 정월 조에 보인다. 다음 8월「천황질미심(天皇疾彌甚)」다음의「여백료사결(與百寮辭訣), 병악수허희(竝握手歔歔)」는 仁壽 4년 7월에 동일한 문장이 있다. 다만「百寮」는 隋書에서는「百僚」이다.

2. 日本書紀의 편수(編修)방침

古事記를 버리고 日本書紀 편수(編修)

일본서기의 편자들은 高祖 문제(文帝)의 죽음이 수서(隋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백료(百僚)가 지켜보는 가운데 황태자를 부탁하는 유언을 하며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다음 아닌 이후의 양제(煬帝)가 되는 황태자 광(廣)에 의한 시역(弒逆)이었다는 소문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역사서가 사실(史實)만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중국에서 배우지 않아도 이미 아는 사실이었다. 제기(帝紀)나 구사(舊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리하게 고치려는 의도에서 처음에는 고사기로 편수되고, 더욱이 그것을 폐하여 전혀 별개인 일본서기로 편수한 것이다.

텐지(天智)천황의 황자를 살해하고 진신노란(壬申亂: 672년)을 일으켜 왕좌에 오른 텐무(天武)천황이 새로운 사서의 편수를 명한 이유를 고사기의 서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제가(諸家)가 가진 제기(帝紀) 및 본사(本辭)는 이미 정실(正實)과 달라 많은 허위를 담고 있다」 하여 그「거짓을 삭제하고 진실을 정하」여 후세에 남기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권에 맞게「합당한」것으로 고쳐 쓰라는 명령이다. 일본서기의 텐무천황 10년의 기록에도 가와시마(川嶋)황자를 비롯하여 12명에게「제기(帝紀) 및 상고(上古)의 제사(諸事)를 정리기록하게 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텐무천황은 사망한다.

그리고 지토(持統)천황 5년(691)에는 18의 성씨에게 그「조상의 묘기(墓記)」를 진상하게 한 사실이 일본서기에 보인다. 이것도 묘기(墓記)에서 사료를 수집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토朝의 시각으로 보아 잘못된 묘기(墓記)는「합당하게」고쳐 쓰게 한 것이다. 묘기(墓記)등에는 특히「합당한」것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奈良)시대가 되어 겐메이(元明)천황 와도(和銅) 4년(711)에 재차「구사(舊辭)의 어긋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선기(先紀)의 잘못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편수가 이루어져 1년도 채 못 되어 고사기 3권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게이타이(繼體)천황에서 마지막 스이코(推古)천황에 이르는 8

대는 극히 간단한 수정으로 끝나고 있다. 그 전대의 부례츠(武烈)천황까지가 본래의 고사기인데 신화적인 이야기로 충만하다. 이것으로는 중국의 사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역력했다. 그러한 이유로 그것을 한층 「수정하여」 보다 확실한 역사서편수사업이 와도(和銅) 7년에 시작된다. 그 후 6년이란 세월이 걸쳐서 요로(養老) 4년(720)에 일본서기 30권이 완성되었다.

중국에서는 당 태종에 의한 진서(晉書)의 재편수가 있었던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진왕조의 역사는 6조시대에 다수 편수되어 그 중에서도 남제(南齊)의 장영서(臧榮緒)가 저술한 진서가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태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외 17종의 진대역사를 참고로 하여 정사로서의 진서를 새롭게 재 편수시킨 것이다. 재상인 방현령(房玄齡)외에 2명을 감수자로 하고 18인의 사관(史官)을 두어 정관(貞觀) 20년(646)부터 2년에 걸쳐 제기(帝紀) 10권, 지(志) 20권 열전(列傳) 70권외에 오호 16국(五胡十六國)의 재기(載記) 30권, 총 130권을 완성하였다. 태종자신도 선제기(宣帝紀), 무제기(武帝紀)와 육기전(陸機傳), 왕의지전(王羲之傳)의 사론(史論)을 썼다고 한다.

전 왕조의 역사는 다음 왕조의 사가(史家)가 집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중국에서도 이러한 재 편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태종은 또한 씨족지(氏族志)의 편수를 명하여 수차례 고쳐 쓰게 하여 마침내 당(唐)왕조의 이씨(李氏)가 예로부터의 제 1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진서(晉書)또한 씨족지(氏族志)와 마찬가지로 황실이씨가 명문 한족이라는 것을 전하도록 편수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서기의 편자들도 전해 들었으리라 추측된다.

여러 가지 정보와 많은 서적을 유입시킨 것은 견당사(遣唐使)와 유학생들이다. 그 모습은 구당서(舊唐書)의 일본전(傳)에「所得錫賚、盡市文籍、泛海而還」이라고 쓰여 있는 것에 의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제(唐帝)로부터 받은 석래(錫賚)를 모두 시장에서 문적(文籍)으로 바꿔서 귀국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베노나카마로(阿部仲麻呂)가 귀국하지 않았을 당시의 견당사로, 요로(養老) 2년(718)에 돌아왔으므로 일본서기편수가 한창이던 시기다. 4년 전인 와도(和銅) 7년에 키노키요토(紀清人)와 미야케노후지마로(三宅藤麻呂)에게 국사를 선정하게 했다는 기록이 속일본기(續日本紀)에 보인다. 이 두 사람의 관위는 중 6 위상과 정 8 위하로 고사기의 정 5 위상인 오노야스마로(太安萬侶)보다 낮지만 요로(養老) 4년에 완성되었을 때에는 토네리신노(舍人親王)가 진상하고 있다.

古事記와는 다른 사료(史料)로 日本書紀 편수

새롭게 사서를 편수하려고 한 것은 새로운 정권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고사기는 신정권의 사서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그것을 폐하고 일본서기가 편수된 것이다. 중세가 되어 발견된 고사기와 비교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새롭게 무엇이 첨가되었는지 일목요연하다. 고사기는 불과 3권이며 일본서기는 30권에 이른다. 고사기와 같은 제기(帝紀)와 구사(舊辭)로 일본서기가 편수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서(兩書)의 내용을 비교하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새롭게 방대(龐大)한 사료가 가미되어있는 것이다.

고사기 편수 때 이미 그러한 사료가 있었다면 그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혹은 있었다 해도 사용이

하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처음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후에 사용하게 되어 일본서기의 기사는 일거에 10 배의 방대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만큼 방대한 것이 고사기 편수 후 8년 안에 전혀 새롭게 기록될 리가 없다. 그것은 이미 있었던 사료의 차용이고 전용(轉用)이며 개찬(改竄)임에 틀림없다.

고사기에는 없는 유라쿠(雄略)천황의 유조(遺詔)는 수서(隋書)에서 고조(高祖)의 유언을 빌려왔다. 비슷한 방법이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서기의 유라쿠기(雄略紀)에는 고사기의 유라쿠기(雄略記)에는 없는 화려한 유라쿠천황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다. 유라쿠기(雄略記)에서는 야마토와 그 주변 카와치(河內)라든지 요시노(吉野)에서의 사건 밖에 쓰여 있지 않다. 그런데 유라쿠기(雄略紀)에서는 일변(一變)하여 대외교류기사가 넘치고 있다. 야마토지방의 오호키미(王)에 지나지 않던 유라쿠(雄略)천황이 별안간 일본의 왕좌로 변신하는 것이다.

유라쿠기(雄略紀)에서는 츠쿠시(筑紫)에서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백제지원, 신라나 고구려와의 전쟁, 그리고 오(吳)나라와의 왕래까지 등장하고, 일약 국제적인 기사뿐이다. 이것은 모두 다른 사서로부터의 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원래부터 유라쿠(雄略)천황의 것이라면 고사기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을 리 없다. 고사기와는 달리 일본서기는 유라쿠(雄略)천황의 것이 아닌 기사를 타 사서에서 전용하여 유라쿠(雄略)천황의 내용으로 조작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자는 웬일인지 이러한 조작에 무관심한 채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다루어왔다.

일본서기가 어떤 사서에서 차용하여 편수되었는지 일본서기도 기술하고 있다. 단 할주(割註)로의 인용을 통해서 그 이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유라쿠기(雄略紀)의 할주에는 서명(書名)이 없는 구본(舊本)이라든지 일본(一本)외에 백제기, 백제신찬(新撰), 그리고 일본구기(舊記)로부터의 인용이 있어 본문을 보충하거나 이동(異同)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할주(割註)로의 작은 인용인데, 본문에도 유라쿠유조(雄略遺詔)와 마찬가지로 대량으로 도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라쿠유조(雄略遺詔)의 도용은 중국에 수서(隋書)가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일본구기나 백제의 사서는 버려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도용확인의 방법이 없을 뿐이다.

백제관계 기사는 백제의 사서에서 그 문장을「대부분 그대로 채록(採錄)하고 있다고 추측되는 것」이라고 이미 지적되고 있다(이와나미(岩波)보주(補註), 아오키카즈오(青木和夫)).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떻게 한반도와 중국에 관계해왔는지 등은 모두 일본구기에 기록되어있었을 것이다. 이 일본구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히이즈루처토로(日出處)의 정권 다시 말해서 치쿠시(筑紫)왕조의 정사(正史)였던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다른 세계상(像)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신화의 세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코노시타카미츠(神野志隆光)『고사기와 일본서기(古事記と日本書紀)』講談社現代新書, 1999年). 그러나 그 다른 세계상은 신화의 역사에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신라의 김춘추(金春秋)가 본 수서(隋書)

당태종이 신찬(新撰)인 진서(晉書)를 편찬한 해에 사여(賜與)한 것은, 때마침 신라에서 지원을 청하여 체제중인 김춘추, 이후의 무열왕(武烈王)이었다(舊唐書新羅傳). 태종은 이미 10년 정도 이전에 북조(北朝)후반사인 북제서(北齊書), 주서(周書), 수서(隋書), 또한 남조(南朝)후반사인 양서(梁書)와 진서(陳書)라고 하는 5대사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김춘추는 그것들도 손에 넣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二十四史라고 불리는 중국정사 중에서 당대까지 성립되어 있던 것은 七史이므로, 태종 혼자 거기에 六史를 더한 것이 된다. 김춘추는 신간인 六史뿐 아니라 그 이전의 七史도 모두 손에 넣어 돌아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춘추는 방당(訪唐)에 앞서 일년 전 일본에 체재하고 있다. 그 5년 전에는 고구려에도 체재하여 연대(連帶)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예상처럼 되지 않았다. 신라는 아직 소국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백제, 고구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당나라로 간 김춘추는 태종에게 후우(厚遇)받아「특진(特進)」(정 2 품)의 위(位)를 받고 있다. 대당(大唐)의 지원을 확실한 것으로 한 김춘추는 그의 아들인 문왕(文王)을 태종의 곁에 남겨두고 귀국한다. 이것이 고구려, 백제, 고구려 그리고 일본의 반당(反唐)노선에 썩기를 박게 한 사건이다.

김춘추가 체류한 일본, 즉 히이즈루토코로(日出處)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X寺가 있는 일본이다. 그곳은 일본서기가 편수된 야마토가 아니다. 수서(隋書)를 보면 히이즈루토코로 노천자(日出處天子)는「치쿠시노쿠니(竹斯國)」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치쿠시노쿠니(竹斯國)로부터 동쪽은 모두 왜(倭)에 부용(附庸)」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이「竹斯」의 독음(讀音)은 치쿠시, 즉 치쿠시(筑紫)이다. 지금도 츠쿠시(筑紫)에서는 치쿠시라고 부른다. 츠쿠시라고 하는 말은 사투리인 것이다.

수서(隋書)도 또한 왜국(倭國)이 야마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던 것이다. 그곳은「아소산(阿蘇山)이 불을 뿜는」곳이기도 했다. 이것은 양제(煬帝)가 대업(大業) 4년(608)에 파견한 배세청(裴世清)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당태종이 일본의 복종을 요구하여 조간(貞觀) 5년(631)에 파견한 고표인(高表仁)으로부터의 보고이기도하다. 고표인은 예의문제에 관하여, 즉 복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문제로 일본의 왕자와 다투어 태종의 조명(朝命)을 전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 후의 구당서는 고표인에게「수원(綏遠)의 재능이 없다」라고 쓰고 있다.

그 밖의 사서에 보이는 왜국전(倭國傳)과는 달리 수서의 왜국전은 그것을 편수할 때 왕래한 사절의 정보에 의하여 쓰여 졌다. 수서의 왜국전을 기록하게 한 것은 이제부터 백제와 일본으로 당군(唐軍)을 파병하려고 하던 태종이었던 것이다. 당조의 정세파악의 정확함에 놀란 것은 김춘추였을 것이다. 수서에는「신라와 백제는 왜를 대국으로 보고 항상 통사왕래(通使往來)」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김춘추는 수서에 일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서의 찬자(撰者)이기도한 중신 위징(魏徵)으로부터 히이즈루토코로(日出處)의 천자를 자칭하는「무례」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었을지도 모른다. 서역(西域)이 정리되면 다음은 동방이다. 복종하지 않으면 정복될 뿐인 것이다.

귀국하여 6년 후 김춘추는 즉위하여 무열왕이 되었다. 더욱이 그 6년 후 무열왕의 요청에 의하여 당나라는 군을 파견하여 백제는 평정된다(660). 백제 재흥을 기도한 일본군이 백촌강 전투에서 완패한 것은 그 2년 후의 일이다. 남은 것은 고구려뿐이고 불락(不落)을 자랑하던 평양도 마침내 함락되었다(668). 신라 혼자만의 승리였다.

당나라와 싸워 패한 일본의 정부는 치쿠시(筑紫)에 있었다. 야마토의 일본서기에는 당사(唐使)와 신종(臣從)이 원인이 되어 참전했다고는 쓰고 있지 않다. 그것은 치쿠시(筑紫)정권과 당나라와의 싸움이였다. 백제출병에는 야마토의 나카노오호에(中大兄)도 치쿠시(筑紫)에 소집되었다. 그러나 나카노오호에는 모친의 죽음을 기화(奇禍)로 하여 야마토로 돌아온다. 돌아온 사실은 일본서기도 기록하고 있다. 비추노쿠니풍토기(備中國風土記)의 일문(逸文)에는 나카노오호에는 2만의 군사를 집결시켰으면서도「끝내 이 군사들을 출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백촌강에서의 패배 이후 정권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려 야마토정권이 확립되었다. 일본서기의 편수까지는 패전 후 반세기가 흐르고 있다. 이 정권교체를 어떤 모양으로 기록했는지 일본서기편수의 정치적의도가 나타나있다. 정권탈취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을 때는「바르게」고쳐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서기의 편자는 정권교체를 은폐(隱蔽)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3. 백제 기사(記事)의 출처

유라쿠기(雄略紀)의 백제관계 기사

유라쿠기에 보이는 백제에 관한 많은 기록은 모두 백제기(百濟記), 백제신찬(百濟新撰), 백제본기(百濟本記) 그리고 일본구기(日本舊記)등으로부터의 양해 없는 전재(轉載)라 추측된다. 예를 들어 유라쿠 5년(461)여름 4월, 백제의 가수리군(加須利君: 개로왕(蓋鹵王))이 동생 곤지(昆支: 軍君)에게 일본으로 가라고 명(命)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汝宜往日本以事天皇: 너는 무사히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받들어라. 곤지(昆支)가 대답하여 말하기를「軍君對曰, 上君之命不可奉違. 願賜君婦, 而後奉遣.: 상군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원컨대 군의 부(婦)를 하사하여 보내주소서」그런 이유로 개로왕은 임신 중인 부(婦)를 곤지(昆支)에게 시집보내며 말한다. 「加須利君則以孕婦, 嫁與軍君曰, 我之孕婦, 既當產月. 若於路產, 冀載一船, 隨至何處, 速令送國: 내 잉부(孕婦)는 이미 산달에 들었다. 만일 도중에 태어나면 배에 태워서 어디에서라도 좋으니 속히 나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軍君은 이별의 말을 고하고 일본으로 향하게 된다(遂與辭訣, 奉遣於朝).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사실은 백제왕이 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 칭하고, 또한 왜왕이 아니라 천황이라 부르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이란 치쿠시(筑紫)이다. 이것은 백제에서 치쿠시(筑紫)로의 파견인 것이다. 일본서기는 일본이라는 국호를 언제 누가 채택한 것인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백제왕은 왜국을 일본이라 칭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또한 천황이란 호칭을 누가 언제 채택한 것인지도 쓰

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백제왕은 왜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있다.

軍君을 일본으로 보내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무녕왕(武寧王)의 탄생담으로 이어진다. 쇼와(昭和) 46 년에 이 무녕왕의 능묘(陵墓)가 발굴되어 묘기(墓記)가 나왔다. 이 명문(銘文)과 비교하여 일본 서기의 이러한 차용의 정확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잠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6 월 1 일「六月丙戌朔, 孕婦果如加須利君言, 於筑紫各羅嶋産兒, 仍名此兒曰嶋君. 於是, 軍君卽以一船, 送嶋君於國, 是爲武寧王. 百濟人呼此嶋曰主嶋也: 잉부(孕婦)는 마침내 加須利君이 말한 대로 筑紫의 各羅嶋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일컬어 嶋君이라 하였다. 軍君은 즉시 嶋君을 배에 태워 백제로 보냈다. 이가 武寧王이다. 백제인은 이 섬을 가리켜 主嶋라 칭했다」.

이야기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嶋君(武寧王)은 筑紫에서 태어났지만 筑紫로 간 軍君(昆支)의 자식이 아니라 加須利君(개로왕)의 아들인 사실을 백제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嶋君이 태어난 主嶋의 고훈(古訓)인 니리므(니림)세마는 백제말일 것으로 추측된다. 니리무의 어미 이므(임)는 존경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니므(님)와 같다. 니므의 어미는 자음(子音)으로 끝난다. 島도 한국어로는 어미가 자음으로 끝난다. 백제신찬(百濟新撰)은 島를 斯馬(シマ)라고도 쓰므로 어미는 모음(母音)이다. 筑紫말인 シマ(시마)와 같은 발음이다. 軍君의 고훈(古訓)은 콘キシ(곤키시)로 중국의 주서(周書)백제전(百濟傳)에도 백제의 백성은 왕을「韃吉支(건길지: 콘キシ)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君이 키시(키시)라면 콘(곤, 건)은 크다는 의미일까. 筑紫말의 오펜키(오호키미)에 해당한다. 王은 한 글자라도 콘キシ라고 읽는다. 이것은 오펜키도 마찬가지다. 수서(隋書)에 의하면 백제인 안에는 신라, 고구려, 왜가 섞여있고 중국인도 있었다고 한다(其人雜有新羅高麗倭等亦有中國人).

이 문장 다음에 할주(割註)가 있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百濟新撰云, 辛丑年, 蓋鹵王遣弟昆支君, 向大倭, 侍天王. 以脩兄王之好也: 百濟新撰이 말하기를 辛丑년에 蓋鹵왕이 동생 昆支君을 보내어 大倭를 향하게 하여 天王에게 시중들게 했다. 그리하여 형인 왕의 신임을 얻었다」.

新撰에 加須利君은 개로왕(蓋鹵王)으로 기록되고 동생인 軍君은 昆支로 쓰여 있다. 본문은 백제기(百濟記)또는 백제본기(百濟本記)로부터의 전재(轉載)일 것이다. 이야기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이것은 일본구기(日本舊記)가 아니라, 백제기(百濟記)또는 백제본기(百濟本記)이다. 백제기(百濟記)를 인용한 할주는 百濟新撰을 인용한 할주보다 더 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백제본기(百濟本記)를 인용한 할주는 百濟新撰보다 더 새로운 시기까지 내려와, 마지막은 筑紫의 君이 등장하는 김메이(欽明 17 년(556))이다. 즉 백제본기(百濟本記)쪽이 새로운 사서이다. 할주의 百濟新撰에는 大倭라고 쓰여 있지만 본문에서는 일본이다. 大倭보다 日本이 새로우므로 본문은 백제본기(百濟本記)로부터의 차용으로 보여 진다. 新撰의 天王은 본문에서는 天皇이다. 天皇이라고 쓰는 것은 天王이라고 쓰는 것보다 새롭다. 6 월 1 일을 6月丙戌朔처럼 간지(奸智)로 기록하는 것도 백제본기(百濟本記)에 기인한다.

천황의 구마나리(久麻那利 : 熊津)하사와 백제 재흥

백제기(百濟記)에서 인용한 마지막 할주가 유라쿠(雄略) 20 년에 보인다. 「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冬, 狛大軍來, 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 國王及太后, 王子等, 皆沒敵手: 백제기에 이르기를, 개로왕 을묘년 겨울, 백(狛: 고구려)의 대군이 와서 大城을 공격하기를 七日七夜, 王城은 함락되고 결국 尉禮도 없었다. 國王 및 太后王子 등,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

狛(코마: 고구려)장수왕(長壽王)의 공격을 받아 백제의 王城(현 서울)이 함락되었다. 그 옛날 부여(夫餘)에서 남하한 백제시조(始祖)의 위례성도 빼앗기고 왕족은 모두 살해되었다(475년). 이 할주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백제멸망을 전하고 있는데, 유라쿠(雄略) 20 년은 병진년(丙辰年)이므로 백제기(百濟記)에 있는 을묘년(乙卯年)이듬해의 기재이다. 이러한 연도의 오차는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승리한 고구려 장수들은 남은 백성의 추급(追及)을 간청하지만 고구려왕은 반대하며 말한다. 「王曰, 不可矣. 寡人聞, 百濟國者爲日本國之官家, 所由來遠久矣. 又其王入仕天皇. 四隣之所共職也. 逐止之: 왕이 말하기를 그것은 좋지 않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백제국은 일본국의 관가로서 유래는 오래고 또한 그 왕이 들어가 천황에게 시중들고 있다. 이것은 사린(四隣)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천황이 아니라 천황, 왜가 아니라 일본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백제본기(百濟本記)로부터의 차용으로 생각되지만, 일본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본구기(日本舊記)일 가능성도 있다.

이듬해의 기록도 천황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天皇聞百濟爲高麗所破, 以久麻那利賜汶洲王, 救興其國. 時人皆云, 百濟國, 雖屬既亡, 聚憂倉下, 實賴於天皇, 更造其國: 天皇은 百濟가 高麗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久麻那利를 汶洲王에게 하사하여 그 나라를 구해 재건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百濟國에 속한 것은 이미 멀하여 倉下에 聚憂했지만, 實로 천황의 덕으로 그 나라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천황이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백제본기(百濟本記)아니면 일본구기(日本舊記)로 추측되나, 자찬의 말이므로 일본구기(日本舊記)에 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주왕(汶洲王)에 관해서는「개로왕의 모친의 동생이 된다」라는 주석(註釋)이 있다. 고구려에 의한 몰살을 면했던 것이다.

천황이 내린 久麻那利의 고훈(古訓)은 코무나리(고므나리)로, 역시 백제 말이다. 나리(나리)는 강이나 나루, 코ム(고므)는 熊(곰)이다. 코ムの 어미는 한국어에서는 자음이다. 새로운 왕성을 고마(固麻)라고 부른 것은 중국의 양서(梁書)백제전(百濟傳)에도 보인다. 麻의 어미는 모음의 ア(아)이므로 치쿠시(筑紫)말인 クマ(곰)와 같은 독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백제인과 왜인(倭人)의 혼주(混住)가 언어에 나타나있다.

새로운 왕성(王城)은 웅진(熊津: 현 공주)이다. 웅진은 일본의 천황이 백제왕의 유족에게 하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본문의 주지(主旨)이다. 그런데 여기에 할주(割註)가 있고 일본구기(日本舊記)가

등장한다.

「日本舊記云, 以久麻那利, 賜末多王. 蓋是誤也. 久麻那利者, 任那國下哆呼喇縣之別邑也: 日本舊記에 이르기를, 久麻那利를 末多王에게 하사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틀리다. 久麻那利는 任那國의 下哆呼喇縣의 별개의 촌이다」

구마나리(久麻那利)를 문주왕(汶洲王)에게 하사했다는 말에 대한 주(註)이므로, 久麻那利를 末多王에게 하사했다고 말하는 日本舊記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久麻那利가 임나(任那)의 작은 마을이라면, 그것을 문주왕(汶洲王)에게 하사했다고 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백제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日本舊記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다.

久麻那利로 백제를 재흥시킨 문주왕(汶洲王)은 4년 만에 살해되고, 뒤를 계승한 13세의 장자도 3년 뒤에 사망했다. 그로인해 일본에 와 있던 昆支王의 아들이 보내지게 된다. 「天王, 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王, 幼年聰明, 勅喚內裏, 親撫頭面, 誠勅慰勸, 使王其國: 天王은 昆支王의 5명의 자식 중에서 둘째인 末多王이 幼年시절부터 聰明하여 다이리(內裏)로 불러 자상하게 머리얼굴을 쓰다듬고 誠勸(誠勸)하여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末多王에게는 「仍賜兵器, 併遣筑紫國軍士五百人, 衛送於國. 是爲東城王. 是歲, 百濟調賦, 益於常例: 兵器和 筑紫國의 軍士五百명을 내려 백제로 보냈다. 이가 東城王이다. 그해 百濟로부터의 조공이 여느 때보다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본문에서는 軍君을 昆支라고 쓰고 있으며 天皇을 天王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신찬(百濟新撰)에서의 차용일 것이다. 확실히 久麻那利를 하사했다고는 쓰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새로운 쪽인 百濟本記가 아니라 오래된 百濟新撰을 사용한 것일까. 아마도 百濟本記에는 日本舊記와 마찬가지로 久麻那利가 쓰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久麻那利라고 쓰여 있으면 末多王은 筑紫軍士五百과 함께 웅진(熊津)으로 보내진 것이 명백하지만, 久麻那利라고 쓰여 있지 않아도 末多王은 웅진으로 위송(衛送)된 것이다. 원래의 왕성은 고구려에게 빼앗긴 상태다. 5백의 군사로는 탈회(奪回)도 할 수 없다. 久麻那利를 주어 재흥을 꾀한 것이다. 왕성이 웅진으로부터 한층 서쪽의 泗沘城(현 부여)으로 옮겨진 것은 60년이나 후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단 한번 그 이름을 보이고 있는 日本舊記는 오류의 기사가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등장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 덕으로 日本舊記의 이름이 역사에 남은 것이다. 일본을 두둔하고 천황을 찬양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日本舊記로부터의 전재(轉載)로 추측된다.

이 유라쿠(雄略) 23년 4월의 기사에는 末多王을 웅진으로 보낸 사실만이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 「筑紫의 安致臣과 馬飼臣 등이 船師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기록하며 끝나고 있다. 역시 失地(失地) 회복(回復)을 위해 군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으나 출진(出陣)하는 것은 모두 치쿠시군(筑紫軍)이다.

다음기사는 8월로 이행하여 수서(隋書)로부터 도용한 유조전재(遺詔轉載)의 내용이 된다. 즉 유라쿠기(雄略紀)는 대부분이 차용한 기록인 것이다. 한반도와의 관계는 모두 筑紫뿐으로 야마토 등

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일본의 정권이 치쿠시(筑紫)에 있었던 사실은 일본서기의 기술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총명한 末多王을 다이리(内裏)로 불러 머리를 쓰다듬던 천황은 筑紫의 도독부(都督府), 훗날의 태재부(太宰府)에 있던 것이다. 태재부(太宰府)의 유적지에「다이리(大裏)나「시신덴(紫宸殿)」이라는 작은 글씨가 남아 있던 사실은 吉田東伍의 대일본지명사전(大日本地名辭典)에도 보인다.

천황이 하사한 웅진은 이후에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하자 웅진도독부가 되고 당나라 장수가 상주(常駐)하는 대일공작(對日工作)의 기지가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고자한다.

치쿠시(筑紫)의 섬에서 태어난 斯麻王에 의한 백제 재흥

일본에서 보내진 末多王의 말로(末路)가 부레즈기(武烈紀)에 기록되어있다. 부레즈(武烈)천황의 비정상적인 행위를「잉부(孕婦)의 배를 갈라 태아를 본다. 사람의 손톱을 뽑아 감자를 캐게 한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아 나무꼭대기에 오르게 하고, 그 나무의 밑동을 잘라 넘어트려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등으로 서술한 다음의 기록이다.

「금년 백제의 末多王은 무도(無道)하고 백성에 대해 포학(暴虐)하여 마침내 백성이 제거하고 시마왕(嶋王)을 세웠다. 이가 무녕왕(武寧王)이다」. 여기에 백제신찬(百濟新撰)을 인용한 할주(割註)가 있으며 정권교체의 이유가 동일하게 기술되어있고, 또한 무녕왕의 이름「斯麻(シマ)」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昆支가 왜를 향하여 갈 때 치쿠시(筑紫)의 섬에서 태어나 되돌아왔다고 하는 주지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백제신찬(百濟新撰)에서 무녕왕(武寧王)은「末多王의 이복(異腹)兄」으로 나온다. 개로왕(蓋鹵王: 加須利君)이 昆支(軍君)에게 준 잉부(孕婦)는 개로왕의 딸이 아닌 昆支의 자식을 낳은 것일까. 그런데 백제신찬(百濟新撰)에는 잉부(孕婦)를 얻은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백제본기가 만든 이야기라고 추측할 수 있다.

형으로부터 잉부(孕婦)를 얻은 것은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형 개로왕이 돌려보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형의 자식임에 틀림없다. 백제본기가 이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꾸민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末多王이 극악무도를 이유로 척결당하고 즉위한 것이 무녕왕(武寧王)이었다. 일본에서 보내진 末多王은 新撰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복동생이었던 것이다. 부친 昆支는 아마 일본에서 일본인 아내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 이복동생을 무녕왕은 살해했다. 무녕왕은 천황을 받들던 아버지 昆支의 자식이기보다는 구도(舊都)에서 고구려에게 멸망당한 개로왕의 자식이기를 바랐을 것이다. 왕가의 단 하나 남은 생존자가 되는 셈이다. 末多王을 타도하는 것은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개로왕의 잉부(孕婦)가 치쿠시(筑紫)에서 자식을 낳은 이야기는 무녕왕 혹은 그 후예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제신찬(百濟新撰)에는 무녕왕의 휘(諱)가 斯麻라고 기록되어있다. 이 斯麻라는 글자가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묘기(墓記)에도 각인되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묘기(墓記)라 하는 것은 편편한 절석(切石)에 새긴 매지증(買地證)을 가리키는 것으로, 목관(木棺)을 안치한 현실(玄室)의 선도(羨道)입구를 지키는 석수(石獸) (곰인가?)앞에 두장 나열되어있었다. 전(錢) 1 만장으로 묘지

를 매입한 사실을 새긴 돌이 본문이고, 그 옆의 돌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있다.

寧東大將軍百濟斯麻壬年六十二歲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

훗날의 삼국사기는「斯摩」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斯麻」라고 쓰고 있는 백제신찬(百濟新撰)이 정확했던 것이다. 이것을 일본서기는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다.

무녕왕의 죽음은 케이타이기(繼體紀) 17년(523) 5월에 기록되어 있으며, 묘기(墓記)와 연월이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백제본기로부터의 전기(轉記)일터이니 일본서기가 정확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유라쿠(雄略) 5년 신축년(辛丑年: 461)에 치쿠시(筑紫)의 섬에서의 출생담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부터 계산하면 계묘년(癸卯年)에는 63세가 되어 묘기(墓記)와 1년의 차이가 난다.

의문은 묘기(墓記)에 보이는 계묘년(癸卯年)의 각인형태이다. 계묘(癸卯)라는 글자 아래에는 이듬해의 간지(干支)인 갑진(甲辰)이 희미하게 보인다. 개각(改刻)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62세인지 63세인지 혼동할 수는 있겠지만, 근일 죽은 연도의 간지까지 착각할리가 없다. 그러나 발굴보고서는「무엇인가의 착각으로 인해 틀렸다」고 단정하고 있다(任昌淳「買地券名文」, 대한민국 문화재관리국 편『武寧王陵』1974년). 따라서 보고서는 생년(生年)을 일본서기보다 1년 늦춰서 기록하고 있다.

3년 복상(服喪)하는 것이 한국의 관습이므로 買地券의 날짜는 익익년(翌翌年)을사(乙巳)년 8월로, 그 후 본장(本葬)이 행해졌다. 그런데 이어서 그 이듬해 왕비가 죽어 합장(合葬)을 하게 된다. 買地券도 뒷면에 첨가되어 합장은 기유년(己酉年: 529)에 행해졌다. 합장 당시 개각(改刻)할 수도 있겠지만 해를 바꾸면 월일의 간지(干支)도 달라진다.

4. 기록된 왕조교체와 기록되지 않은 왕조교체

수, 당의 왕조교체와 雄略, 繼體의 왕조교체

고사기에서 일본서기로의 열배나 되는 증량은 백제 3서나 일본구기로부터의 전재(轉載)라는 사실을 유라쿠기(雄略紀)의 분석을 통해 밝혀왔다. 지금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雄略에서 武烈까지의 기록은 동일한 편자의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서기의 편수에 관계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문장의 언어사용법이나 용어 등에서 전 30권의 일본서기는 10組 정도로 분류된다고 한다(岩波解説, 坂本太郎). 단 일본서기가 차용한 원 자료의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雄略組는 또한 차기의 케이타이(繼體)에서 김메이(欽明)까지의 묶음과도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편자들이 많은 천황 중에서 특히 雄略천황을 선택하여 고조(高祖)의 유조(遺詔)를 연결시킨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던 것일까.

雄略으로부터 부레츠(武烈)까지의 5 대에는 50년이 할당되어 있다. 武烈천황의 치세는 점차 쇠

해가면서 포악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더욱이 황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었다고 일본서기는 기록하고 있다. 천황에게 자식이 없어도 계루(係累)에는 황위쟁탈을 할 젊은이는 여러 명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들의 황위 다툼이 일본서기가 기술하는 역사이기도하다. 그러나 武烈천황의 후대는 오진(應神)천황의「6대 손」을 코시노쿠니(越國)에서 데려와 이가 케이타이(繼體)천황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식의 줄거리가 보인다.

오진(應神)은 武烈(武烈)보다 10대나 이전의 천황이다. 5대나 10대를 거슬러 올라가거나, 반대로 5대나 10대를 내려하면 혈연관계에 있는 젊은이는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일단 권력을 취하면 한없이 미화되는 것은 당 태종만이 아니다.

정관(貞觀)의 治로 잘 알려진 태종 이세민(李世民)의 시대도 참극(慘劇)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세민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부친 이연(李淵)에게 거병을 재촉하여 중국 각지의 군웅(群雄)을 7년에 걸쳐 평정한 실력자이다. 무덕(武德) 9년 6월, 형인 황태자와 동생을 급습하여 살해한 이세민은 3일후에는 황태자에 오르고 2개월 후에는 아버지를 태상황(太上皇)으로 하여 제위(帝位)에 올랐다. 그 연호가 정관(貞觀) (626년)인 것이다. 이 현무문(玄武門)의 변(變)은 후대의 사서에 어떻게 기술되어있을까. 이것도 일본서기의 편자들에게 화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5대후 진(晉)나라 때 관수(官修)된 구당서(舊唐書: 3백 권, 4년 걸려 945년 완성)는 태종을 해하려 모의한 황태자와 동생을 현무문에서 처형했다고만 적고 있다.

이러한 골육의 다툼은 야마토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수나라 고조(高祖)의 유조(遺詔)를 받은 유라쿠(雄略)천황은 잉교(允恭)천황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지만 셋째아들인 安康천황이 살해되었을 때 두 명의 형을 죽인 천황이 되었다. 형 安康는 백부 리츄(履中)천황의 황자이며 이치베노오호키미(市邊王)에게 왕좌를 잇게 하려했다. 유라쿠천황은 그 이치베노오호키미(市邊王)마저 살해한 것이다. 이러한 골육상쟁을 나름대로 논리 정연한 이야기로 구성한 것이 고사기나 일본서기 편수의 일이었다.

高祖와 雄略에게 닳은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조의 유조(遺詔)에 보이는 황태자 광(廣)은 둘째로, 어머니인 독고(獨孤)황후에게 아첨하여 형을 폐하고 이윽고 제위를 계승하여 양제(煬帝)가 되었다. 雄略유조(遺詔)에 있는 황태자는 셋째 아들로 후대인 淸寧천황이다. 황위를 다툰 호시카와(星川)황자에게도 실형(實兄)이 있었다. 그러나 모친은 동생에게 천하의 자리에 오르려면 오오쿠라(大藏)의 관(官)을 취하라고 권유했다. 어머니 쪽인 키비씨(吉備氏)의 지원이 있었지만 葛城계의 황태자에게 패해 호시카와(星川)勢는 오오쿠라(大藏)와 함께 불에 타 죽었다고 전한다. 高祖와 雄略의 황태자에 관해서는 양쪽 모두 장자가 아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淸寧천황에게는 양제(煬帝)와 같은 업적이 없다. 고사기에서는 재위한 일이 한 줄 기록되어 있을 뿐 연령이나 사망년도 미상이다. 일본서기에서는 재위 5년이라고 하고 있지만 연령은 미상이다. 淸寧천황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雄略천황에게 살해된 이치베노오호키미(市邊王)의 유복자 형제를 찾아내어, 동생이 먼저 즉위하여 顯宗천황이 되고 계속해서 형이 仁賢천황이 되었다. 雄略천황은 市邊王을 죽여 유체를 토막 내 말의 여물통에 넣어 아무도 모르게 매장했기 때문에 顯宗,

仁賢紀에서는 살해된 부친의 유골을 찾아내어 장사지내는 일이 주제가 되고 있다. 仁賢의 아들이 武烈천황이다. 재위는 모두 짧아 4대에 30년이 채 안되며, 그 기간 거의 아무런 사적(事績)도 없고 화제도 지방적인 것뿐이다. 수대(隋代)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雄略천황에게는 수제(隋帝)의 유조(遺詔)가 접목된 것이다. 여기서 雄略의 시대를 수나라에 비교하면, 당나라시대로의 교체가 이어지듯 왕조의 교체가 이어진다. 케이타이(繼體)로부터의 새로운 시대가 당나라시대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 편자들의 최대과제는 왕조의 교체를 어떻게 묘사하는가에 있었다고 추측된다. 雄略朝와 繼體朝는 왕조의 교체를 가지고 기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치쿠시(筑紫)의 왕조는 소거(消去)된 것이다. 치쿠시(筑紫)에서 야마토로의 왕조교체를 완전히 은폐하는 것이 편수의 기본원칙이었다. 특히 히이즈루도코로(日出處)의 천자의 업적인 X寺건립이나 견수사(遣隋使)파견 모두 철저히 말살되고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일본서기 군데군데의 기록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국(神國)의 계보

일본서기는 치쿠시(筑紫)의 정권은 무시했지만, 야마토의 신정권도 또한 치쿠시(筑紫)에 강립한 신들의 피를 잇는 일족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진무(神武)천황은 방계(傍系)라고는 하지만 치쿠시(筑紫)신들의 일족으로서 야마토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신의 나라(神國)」계보의 기술은 일본서기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고사기로부터의 채용이었다.

고사기의 설화는 23대 顯宗천황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으므로, 츠다사우키치(津田左右吉)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고사기는「그 때부터 그리 멀지 않은」시기에 성립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거대한 고분의 축조(築造)에 여념이 없던 야마토 왕들의 이야기가 고사기인 것이다. 일본서기는 그 후의 26대 繼體천황으로 시작되는 왕통이 치쿠시(筑紫)의 신들로부터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사기를 계승하여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繼體천황은 15대 오진(應神)천황의 6대손으로 일본서기는 기록하고 있다. 6대라고 하면 주지하는 것처럼 세이와(清和)천황과 미나모토요시이에(源義家)의 간격과 마찬가지로이다. 그 새로운 계보가 훗날 쿠데타로 야마토 정권을 취하고 마침내 일본의 주권을 계승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일본서기는「신의 나라(神國)」안에 포함시켜 일본의 통합을 기도한 것이다.

또한 땅으로 내려온 神國의 계보는 치쿠시(筑紫)정권 그 자체의 주장이기도 했을 것이다. 야마토보다 오래고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하더라도, 치쿠시(筑紫)정권이 만세일계(萬世一系)였는지는 즉단하기 어렵다. 여왕의 등장도 倭國이 크게 혼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치쿠시(筑紫)에 있어서도 또한 새롭게 실권을 장악한 세력은 나름대로 각각「지상강림」의 계보를 강조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산일(散逸)된 일본구기에는 그러한 설화가 기록되어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고사기나 일본서기에서 재생산되어 있는 것이다.

日本書紀의 견본

일본서기는 일본기(日本紀)라고도 하는데 사서의 체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사가 견본으로 차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하나로 북조(北朝) 위(魏)의 정사인 위서(魏書)를 들 수 있다. 북조는 흥안령(興安嶺)북쪽에서 진출한 선비족(鮮卑族)이 위(魏)를 국호로 하여 건국한 왕조로, 마침내 화북(華北)을 통일하여(439년)한족(漢族)인 남조와 대치했다.

위서(魏書)에 따르면 선비족은 전설상의 황제(黃帝)로부터 시작된다. 그 25 명의 자식 중 한명이 北土에 책봉되어 67 대를 거쳐 성황제(成皇帝)에 이른다. 황제의 이름이 15 대 이어지다가 시조(始祖)인 신원황제(神元皇帝)가 즉위한다. 즉 신대(神代)로부터 시작되며, 인간의 대(代)는 모두 황제라고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북위(北魏)의 신원황제(神元皇帝)는 진(晉)의 무제(武帝)가 삼국시대의 위(魏)에서 선양(禪讓)을 받은(265년)무렵의 인물로, 그 아들은 무제(武帝)를 섬겨 후우(厚遇)를 얻었다고 한다. 위(魏)를 국호로 하여 건국한 것은 그 이후 10대 백년을 지난 태조 도무(道武) 황제 때의 일이다(386년). 그 선조에게 모두 황제의 호를 부여한 것은 천명을 받아 건국한 이후의 일이다.

일본서기의 경우도 신대(神代)에서 시작되고 진무(神武)천황이후는 모두 천황이라 칭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천명을 받아 즉위한 이후의 일일 것이다. 일본서기의 천명개별천황(天命開別天皇)이라는 이는 나카노오호에(中大兄 : 후의 덴지(天智)천황)이다.

위서는 북제(北齊) 위수(魏收)의 찬(撰) (성립 554년)으로 편수의도가 두드러진 사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傳)은 있지만 왜국전(倭國傳)은 없다. 즉 倭國은 북위에 조공하지 않았으므로 무시된 것이다. 더욱이 왜국전(倭國傳)이 없을 뿐 아니라 고구려전(高句麗傳)이나 백제전(百濟傳)안에도 광개토왕(廣開土王)과 싸운 倭國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취급을 참고로 한 때문인지 일본서기도 남조에 신종(臣從)한 치쿠시(筑紫)정권의 사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注)

- 1)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제국(諸國)은 각각 자신들의 나라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여 중방(中邦)이라고 불렀으므로 여러 개의 중방이 있었다. 『춘추(春秋)』는 제(齊)라고 하는 나라에서 편찬되어 그에 맞춰서 「공양전(公羊傳)」이 만들어졌다. 거기에서는 제(齊)가 서쪽 접경의 노(魯)와함께 중방(中邦)이고, 초(楚), 진(秦), 오(吳)등은 이적(夷狄)으로 묘사되어있다. 그 제(齊)를 동이(東夷)의 통속과 어울린다고 멸시한 것은 「곡양전(穀梁傳)」이다. 여기에 제(齊)보다 서편의 중산(中山)이라고 하는 나라의 천하관이 표명되고 있다. 중산(中山)이 중방(中邦)으로 묘사되고 북쪽의 진(晉)과 서쪽의 진(秦), 남쪽의 초(楚), 오(吳) 등은 모두 오랑캐가 되어있다. 「좌전(左傳)」의 경우는중원(中原)의 한(韓)이 중방(中邦)이며 하(夏)라 불리고 있다. 동은 이(夷), 북은 적(狄), 서는 용(戎), 남쪽의 초(楚)는 만(蠻), 오원(吳越)은 만이(蠻夷)이다. 방(邦)이라는 글자는 한제국(漢帝國)이 성립하면서 초대황제 유방(劉邦)의 이름에도 포함되어있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국(國)이라는 글자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중방(中邦)은 중국(中國)으로표기하게 되었다(平勢隆郎『よみがえる文字と呪術の帝國(되살아나는 문자와 제국)』中央新書, 2001년). 나라가 혼란하면 다수의 중국이 생겨난다.
- 2) 日本書紀는 이와나미(岩波)일본고전문학대계(日本古典文學大系), 隋書唐書 등은 中華書局版을 사용했다.